

의존문법과 생성문법 간의 상호관계

이점출(중앙대)

1. 서론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의존문법과 생성문법 간의 상호관계, 특히 의존문법에 도입된 생성문법의 몇 가지 이론 요소를 고찰해보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존문법은 문장성분들 간의 지배 및 의존 관계를 연구하는 문법 이론으로서 1959년 Lucien Tesnière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이후로 현재 독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문법연구 방향들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의존문법은 주로 Ulrich Engel을 필두로 한 만하임 학파와 Gerhard Helbig를 필두로 한 라이프찌히 학파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구권과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동구권 및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서구권의 학자들은 주로 자국어와 독일어의 대조연구를 통해 보충어를 분류하여 문형을 설정하고, 결합가 대조사전을 편찬하며, DaF-수업에서 의존문법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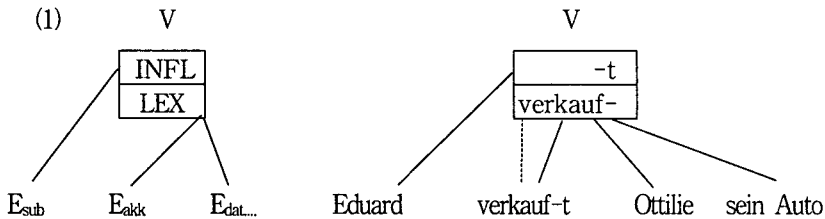
오늘날 의존문법과 생성문법은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Engel(1994:16)에 의하면 문법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법은 문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법학자들의 논쟁에서는 타당성(Richtigkeit)이 아니라 언제나 “더 좋은 문법”(bessere Grammatik)이 문제된다. 문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또 언어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의존문법을 기술하는 Eroms (2000) 및 Vater(1996)의 이론과 의존문법적인 관점에서 S와 NP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Ágel(1993a;1993b;2000)의 이론을 중심으로 의존문법과 생성문법 간의 상호관계를 논의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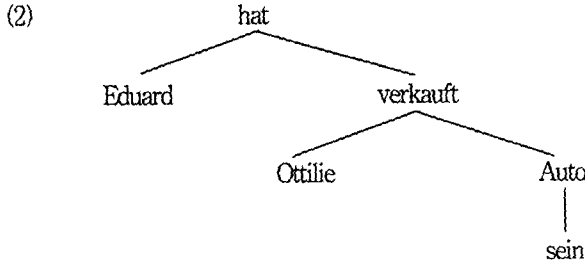
2. 계층적 결합의 모듈로서의 의존과 결합가

이 장은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결합가 이론/의존문법의 사상을 도입하는 Hans-Werner Eroms(2000)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미 일찍부터 결합가 이론에서는 동사, 명사 및 형용사 간의 유사성이 논의되었다.

의존적으로 볼 때 동사구에 대한 형식화는 분명하다. 즉 동사가 동사구의 핵이다. 이러한 사실은 의존문법의 계층적인 기술에서 특히 잘 표현된다. 그러나 주어 가 모든 다른 보충어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구의 구조와 결합가의 결합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벗어날 것이다. 즉 구의 구조는 통사·의미적인 제약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러나 주어는 비 제약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는 하위부류 특수적이지 아니며, 다르게 조직된 구, 즉 정동사의 형태소에 의해 규정되는 구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동사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결합을 다른 보충어의 결합과 구별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H-W. Eroms 200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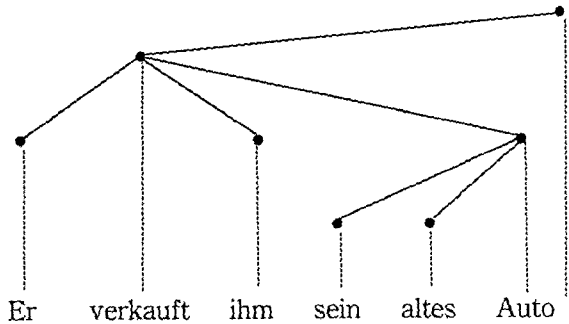


따라서 동사구는 사격(斜格)의 보충어를 결합하는 보다 긴밀한 구와 주어의 결합가를 결합하는 외부의 구로 분할될 수 있다. 즉 의존문법의 정동사 형태소는 변형생성문법의 INFL-구의 핵에 해당한다. 도식에서 주어가 직접 정동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구조관계를 긴밀하게 묶어준다. 모든 구조에서 긴밀한 동사구와 외부의 동사구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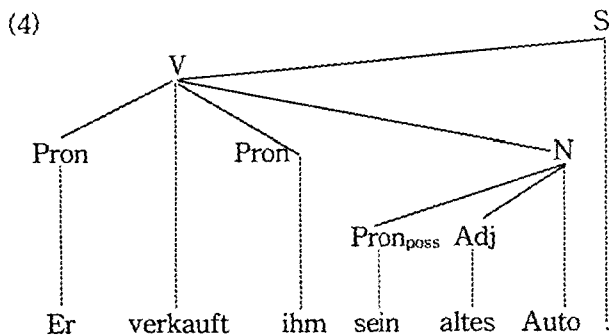


전통적인 의존문법에서는 동사가 계층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단어이다. 즉 동사가 문장의 정상에 있으며 문장을 조직한다. 동사가 문장의 주요부분을 조직한다는 사실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로써 문장 정상에서의 계층관계가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Eroms는 다른 방법을 취하여 동사가 아니라 S를 문장의 정상에 두려고 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Kunze(1975)의 종속문법을 언급할 수 있다. Kunze는 교점(Knoten)만을 사용하고 이 교점에 지표를 붙이지는 않는다. Kunze에 따르면 다음 문장은 아래와 같은 도식을 갖는다.

(3) Er verkauft ihm sein altes Auto.



우리가 범주기호를 사용하여 “잠재적”(virtuell)인 도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Eroms 20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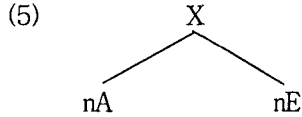
의미적으로 볼 때 결합가를 갖는 동사 안에는 압축된 명제모형(Urteilmuster)이 들어 있다. 이 명제모형이 실제적인 문장에서는 문장 안에서 실현된다. 그 목적으로 명제모형이 문장 안으로 들어온다. 문장은 단순히 상위에 배열된 동사구가 아니다. 동사-논항 구조는 동사의 정동사화를 통해서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Kunze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이러한 발상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즉 문장도 역시 많은 경우에서 종속적인 성분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은 특정한 접속사에 종속한다. 이를테면 등위접속사 und가 S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S가 und에 종속한다. 우리는 S를 개개 문장의 핵심만을 요약하여 포함하는 한 단어의 등가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문장기호(Satzzeichen)는 의무적인 문장종결신호로서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roms(2000:93)는 이것을 S, S?, S!로 기술한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특수한 문장, 즉 서술문, 의문문 혹은 요구문이 거론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신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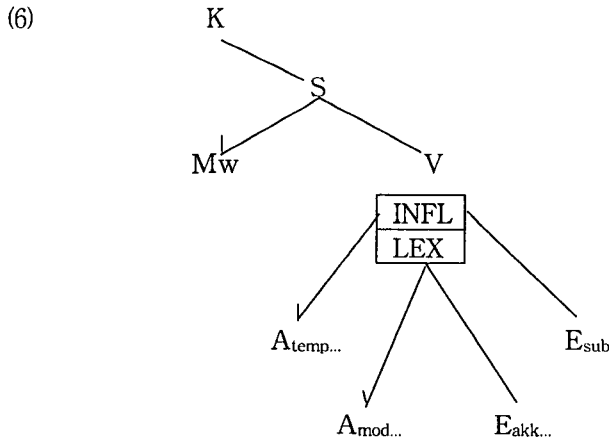
S를 의존도식에 수용하는 것은 문장의 연관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보충어(E)와 첨가어(A)의 분리를 통한 결합가 원칙의 유추적인 확대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 즉 문장유형을 표현하는 한 요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로써 V에 대한 유추는 완전하며 이 유추는 모든 의존단계에서 적용되고 S도 역시 포착한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핵계층 통사론(X-bar-Syntax)에 대한 유추는 완전해진다. V는 자신의 의존소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S에 종속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동사가 자신의 의존소를 문장 안으로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핵계층 도식에서는 통사구조의 핵(Kern)이 문제된다. 의존적인 관점에서는 이것

을 문장의 귀환적인 핵(Nukleus)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구의 핵 X는 일련의 보충어를 결합하고 그리고 일련의 첨가어를 허용한다. 그러면 문장은 도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S(=S, S?, S!)가 구성성분구조 문법의 S와 정확히 비교될 수는 없다. S는 문장의 이분법적 분할에 대한 시작기호가 아니라 모든 다른 단어들이 종속하는 문장의 최상위 요소이다(Eroms 20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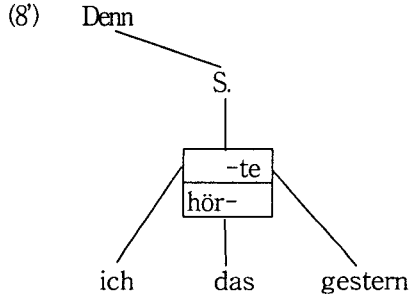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층적인 관점에서 문장정점의 구조에 대해 보다 정확한 표상을 얻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장의 직선적인 위치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등위접속사가 실제로 문장 위에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등위접속사가 문장을 지배하거나, 혹은 문장이 정점에 있는 등위접속사를 통해서 조종되며 그것에 종속한다. 즉 등위접속사의 경우에는 직선적인 배열과 계층적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 등위접속사는 의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등위접속사는 문장들을 텍스트로 결합하는 문장의 “돌쩌귀”이다. 즉 등위접속사는 문장에서 불가피

하게 접하게 되는 직접적인 텍스트 요소이다.

이러한 견해를 용인하는 데 대한 표지는 등위접속사가 그 문장과 대조될 수 있는 수의적인 휴지이다. 이것은 가끔 등위접속사 다음에 삽입되는 쌍점으로 표현된다.

(7) Aber: So habe ich es doch gar nicht gemeint.

(8) Denn: Das hörte ich gestern.



이것은 현대어에서, 특히 언론의 언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통사적으로 강조된 연결어” 혹은 “병렬접속사”(Parakonjunktion)에서 적용된다. 여기서는 문장 통합적인 단어를 텍스트 층위나 담화 층위로 인상한다.

3. 독일어 동사구 구조와 동사 결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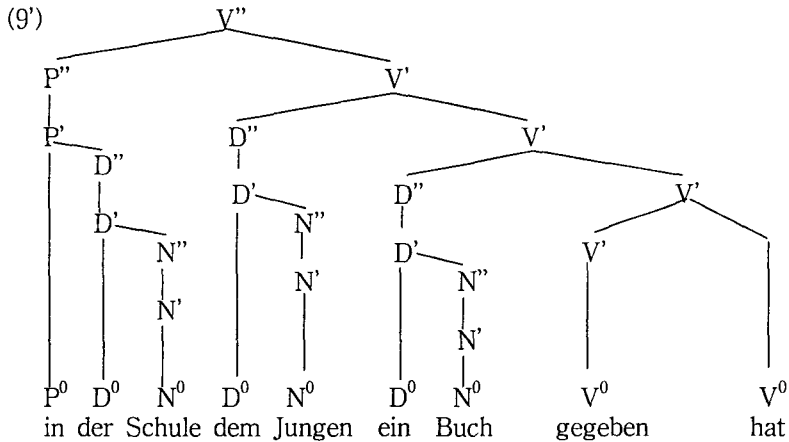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바탕 위에서 Ágel(1993a)의 결합가 사상을 도입하는 Heinz Vater(1996)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구성성분문법은 언어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구는 문장과 단어 사이에 있는 통사단위이다. 구는 내심적이며, 즉 전체의 범주를 형성하는 핵을 갖는다. 핵은 단독으로도 하나의 구를 형성할 수 있다. 구와 구성성분은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1) 구성성분은 항상 (보다 큰) 전체의 일부이다. 구는 항상 한 핵의 최대투사이다. (2) 모든 구성성분이 다 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구를 구분할 수 있다: NP, VP, AP 및

PP.

아주 복잡한 VP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 문장 (9)에 대한 VP-구조는 (9')와 같다. 여기서는 기능범주 D(Determinans, 한정사)를 핵으로 취하는 DP(한정사구)를 가정한다(Vater 1996:173).

(9) Der Lehrer hat in der Schule dem Jungen ein Buch gegeben.



(9)의 PP in der Schule와 같은 첨가어 최상위 단계인 V'' 밑에서 생성되고, 목적어는 다음 단계인 V' 밑에서 생성된다. V'는 N', X'와 마찬가지로 귀환적(rekursiv)이다(Fanselow/Felix 1987 II: 54). 간접 목적어는 최상위의 V'-단계에서 생성되고, 직접 목적어는 그 다음의 V'-단계에서 생성된다. 왜냐하면 직접 목적어가 V⁰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VK(Verbkomplex, 동사복합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V'의 귀환성이 이용된다: V'는 - 목적어-NP나 PP 외에 - V⁰와 다시 V'를 관할한다. 이 귀환성은 동사(V)의 성분이 생성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다음 (10)과 같은 비문법적인 VP의 생성도 허용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다: kommen은 목적어를 허용하지 않고, lesen은 단 하나의 목적어만을 허용하며, legen에서는 목적어와 방향 부사어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들이 보이는 것은 VP의 통사구조가 VP의 동사 핵의 결합가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Fanselow/Felix(1987 II:46)

는 (11)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규칙을 가정하였는데, 이 규칙에서는 가능한 보충어와 첨가어의 위치가 점으로 암시된다.

- (10) a. *(dass Hans) ein Buch kommt
 b. *(dass Hans) dem Jungen ein Buch gelesen hat
 c. *(dass Hans) legt
- (11) VP → ... V ...

예 (11)이 보이는 것은 VP의 구조가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예견될 수 있으며 동사 결합가의 진술을 통해서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esnière(1959:238f.)에 의하면 결합가능성은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사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보충어의 빈자리는 모든 구체적인 경우에서 채워질 수 있지만,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빈자리 내에서도 채워져야 하는 빈자리(예: stellen에서)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빈자리(예: lesen에서)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Helbig/Schenkel (³1975)로 하여금 의무적 결합가와 수의적 결합가를 구별토록 하였다. 의무적인 보충어는 수의적인 보충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삭제될 수 없다.

- (12) a. Peter hat ein Buch ins Regal gestellt.
 b. *Peter hat ein Buch gestellt.
 c. *Peter hat ins Regal gestellt.
 d. *Peter hat gestellt.
- (13) a. Peter hat ein Buch gelesen.
 b. Peter hat gelesen.

동사의 결합가는 또한 보충어의 통사적 속성도 결정한다. 그래서 treffen은 두 번째 보충어로서 4격-NP, begegnen은 3격-NP, warten은 PP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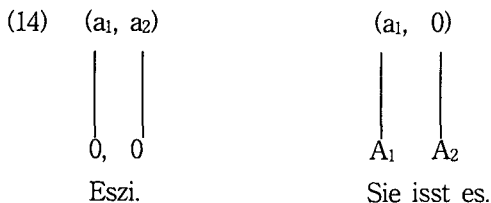
앞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VP의 통사적 충전은 동사핵의 결합가를 고려해야 한다. (b) 모든 동사는 그 보충어의 수와 종류를 결정하는 특수한 결합가를 갖는다. (c) 결합가의 정의와 동사에 의해 요구되는 보충어 및 동사

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임의 첨가어의 구별에서 문제점이 많다.

Ágel(1993a)은 앞서 논의한 문제점으로부터 어휘부의 어휘내항에 내재해 있는 결합가 잠재력(Valenzpotenz)과 문장이나 동사구의 통사론 및 의사소통적 사실 (언어문맥, 화자의 의도, 화청자의 세계지식)에 종속하는 결합가 실현 (Valenz- realisierung)을 구별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Ágel(1993a:40)은 미시층위(Mikroebene)와 거시층위(Makroebene)를 구별하는 경우에만 결합가 개념을 언어 유형적 및 언어 비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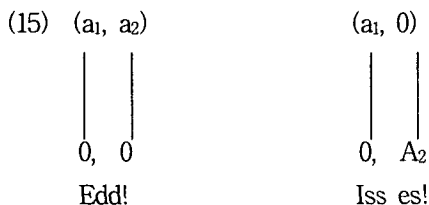
- (a) 미시층위는 ‘형태적 보충어’를 말하며, 라틴어 (filius) amat (patrem) 안에 있는 인칭어미 -t가 그 예다.
- (b) 거시층위는 Helbig/Schenkel(31975) 이후로 주로 연구된 ‘통사적 보충어’를 말한다.



여기서 각각 a 는 미시형태, A 는 거시형태, 0 는 비실현을 나타낸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헝가리어는 주어 대명사와 목적어 대명사 없이도 가능하다(헝가리어 *eszik* = 독일어 *essen*).

Ágel(1993a:43)에 의하면 명령형 역시 두 층위 모형에 포함될 수 있다.

명령형에서는 독일어가 헝가리어에 더욱 근접한다. 왜냐하면 독일어 주어가 헝가리어에 서와 같이 동사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어 학자들이 이 두 층위의 구별에 관심을 갖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어에서 통사적 구성성분에 의해 실현되는 동사 보충어가 헝가리어에서는 종종 형태적으로, 즉 동사의 접사(Affix)에 의해 실현된다.

이 두 층위 모형(Zwei-Ebenen-Modell)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Vater 1996:178f.).

(1) 결합가 실현에서 통사론과 형태론 간의 상호작용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결합가는 통사적이나 혹은 형태적으로 선택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통사적) 대용형태와 (형태적) 동사접사는 결합가 실현의 선택적인 수단으로 증명된다.

(2) 우리는 언어비교에서 두 층위에 의해 결합가를 더욱 잘 분석할 수 있다: 한 언어(예컨대 독일어)에서 통사적 수단에 의해 결합가에 종속된 동사성분('보충어')으로 밝혀진 것이 종종 다른 언어(예컨대 라틴어와 헝가리어)에서는 형태적 수단(동사 접사)에 의해 실현된다.

(3) 한 언어 내에서도 상이한 실현형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어 명령형의 예가 보이는 바와 같이 경칭에서는(예: Komm!) 주어가 동사에 통합되어 있고, 존칭에서는(예: Kommen Sie!) 직설법에서처럼(예: Er kommt) 특별한 대명사성분에 의해 실현된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는 독일어 VP의 구조를 핵계층 도식(X-bar-Schema)에 따라 체계

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때 첨가어를 최상위의 단계 V''에 배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목적어의 배열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목적어와 부사규정어의 생성을 위해서 Fanselow/Felix(1987)가 제안한 V'의 귀환성(Rekursivität)을 이용할 수 있다.

(2) 핵계층 규칙만으로는 가능한 다양한 VP-구조를 생성할 수 없다. 여기서 핵계층 규칙과 결합가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3) 동일한 결합가 잠재력의 상이한 형태·통사적 실현과 상이한 언어들 간의 결합가 실현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Ágel(1993a)에 의해 제안된 결합가 잠재력과 결합가 실현을 이용할 수 있다.

4. 결합가의 실현 층위와 명사구의 의존구조

이 장에서는 Vilmos Ágel(1993a;1993b;2000)을 바탕으로 하여 의존문법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인 두 층위 모형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독일어 S와 NP에서 결합가 실현의 유사성을 토대로 독일어 NP-구조를 순수 의존문법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4.1. 결합가의 실현층위

László(1988)는 Pasierbsky에 따라서 결합가의 두 가지 실현층위, 즉 미시층위(=형태적 보충어의 층위)와 거시층위(=통사적 보충어의 층위)를 가정한다. 두 층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보충어(독일어에서는 다만 1격 보충어, 헝가리어에서는 1격 보충어와 4격 보충어)는 두 층위 보충어(Zwei-Ebenen-Aktant)라고 칭한다. 이들을 토대로 하여 Ágel(1993a: 41f., 2000:221ff.)이 제시하는 독일어와 헝가리어의 미시층위와 거시층위 간의 대립은 그 일부가 앞장에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헝가리어와 독일어의 1격 실현에서의 차이를 도식적으로 제시한다(헝가리어 élek = [ich] 'leb-e').

(16)

	동사어휘소	미시충위	거시충위
독일어	leb '1격' --->	----e---->	<---ich '1격'
헝가리어	él '1격' --->	<---ek '1격'	

이 기술은 또한 격지배 관계(독일어에서 동사형태와 거시충위)와 일치 관계 (헝가리어에서 동사형태와 미시충위)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이 기술은 또한 동사형태 내부적인 격지배 관계(헝가리어)와 동사형태 외부적인 격지배 관계(독일어) 간의 차이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여기서 내부적 및 외부적 지배관계가 아니라 상이한 성분 구조가 문제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17)

	동사어휘소	미시충위	거시충위
독일어	[lebe]		[ich]
헝가리어	[él]	[ek]	

이로써 어휘부와 문법 사이의 동적인 상호 작용으로서 충위관계의 기술을 위한 전제조건이 형성되었다.

어떤 특정 문법모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이유를 반드시 규명할 필요는 없다. 결정적인 것은 그 모형에서 이루어진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나의 여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Ágel(1993b:5f.)은 독일어 명사 분석에서 GB-이론에 따른 X'-분석(=해계층 이론)이 주도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독일어 NP를 의존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모형을 선택하게 된 두 가지 동기를 밝히고 있다.

(1) 우리는 DG(의존문법)와 GB-이론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의존(Dependenz)' 대 '성분구조(Konstituenz)'라는 대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DG가 언제나 자신의 의존구조에 도달하는 것과 똑

같이 GB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자기의 성분구조에 도달한다: 지배소(Regens)/핵(Kopf)과 의존소(Dependens)/보충어(Komplement) 간의 관계는 구조형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통사구조를 사전에 결정해 주는 어휘부(Lexikon)에 핵심적인 역할이 부여된다(Welke 1995).

(2) 의존구조의 근간인, Tesnière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핵(Nukleus)에 대한 동기는 직접적이며 언어학의 문외한에게도 명백하다. 핵은 어휘범주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어휘적 능력이 없는 기능어는 보편적 의미방식의 물질적 실현(동사, 명사, 형용사 및 부사 형태)을 개별 언어적인 통사적 규범에 조화시킨다. 이에 반해 현대의 핵계층 이론은 기능적 핵뿐 아니라 어휘적 핵도 이용한다. 우리가 다음 문장의 핵연쇄 er - liest - Buch와 세 개의 최대 투사범주를 생성하는 동일한 문장의 핵연쇄 dass - t - lies- 를 비교해 보면, 다만 핵형성의 기본원리와 핵의 분류상의 동질성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8) dass er in einem Buch liest

어휘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를 동일한 방식으로 핵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GB-이론이 더욱 기술 타당한 이론이라는 Wegener(1990)의 주장은 의심스럽다.

4.2 독일어 NP의 의존문법적 분석

헝가리어의 거시적 제1보충어(=통사적 주어; Milewski의 ‘명사적 주어’)는 Vf 안에 통합된 미시적 제1보충어(=동사 굴절소(Verbflexiv:Vf); Milewski의 ‘대명사적 주어’)에 대한 동격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1보충어의 어휘적 실현만이 Vf의 외부에서 나타나야 한다. 제1보충어는 범주어로서, 즉 하나의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명사’로서 Vf에서 실현된다.

(19) Ugat ‘bellt_{-a1}’ →

A kutya ugat ‘Der Hund_{-A1} bellt_{-a1}’

이와는 반대로 독일어의 거시적 제1보충어는 Vf 안에 통합되어 있는 미시적 제1보충어와 동격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어 Vf 안에는 a1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적인 거시적 제1보충어의 대명사화로 인해 거시적 제1보충어가 실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주어(=대명사)도 역시 거시적 보충어로 실현된다.

- (20) a. Der Hund-_{A1} bellt.
b. Er-_{A1} bellt.

독일어 Vf의 동사 굴절소는 다음과 같이 생략적인 변화형태에서만 작용한다. 이런 경우에서만 동사 굴절소(예문에서: -e)가 미시적 제1보충어로서 제1보충어를 표현하는 기능을 전수 받는다(Ágel 1993b:17f.).

- (21) Suche-_{a1} eine Wohnung.

따라서 *Bellt는 독일어 문장이 아니라 S[A1 bellt]의 축소형태로서 어떤 주어진 담화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독일어 발화이다. (20a)에서의 연쇄는 bellt에 대한 함축적 확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bellt에는 범주적으로, 즉 명사로서 거시적 보충어를 마련해 주는 어떤 요소도 없기 때문이다. bell-의 제1보충어가 Vf에서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은 독일어 Vf의 구조와 bell-의 결합가에 의해 공동으로 형성된다. bell-의 결합가와 그리고 이 결합가를 Vf bellt에서 구조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사실 간의 긴장으로 인해 거시적 보충어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독일어 자동사 문장구조를 Vf의 함축적 확대로서 생성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2) S[[Vf x →] [NPhom y]]

이 기술이 의존문법적인 이유는 그것이 문장생성을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형성적 요소로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소로서의 Vf는 의존소로서의 NPhom을 함의한다. 'S'는 실제로 어떤 의존범주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괄호 밖에 표시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Eroms(1985)에 의해 도입된 의존문법적 단어 등가어의 시작 기호 'S'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출현형태 'S.'(서술문), 'S?'(의문문), 'S!' (감탄

문)는 특정한 억양소(Intonem)를 갖는다.

Ágel(1993b:19)은 'S'를 단어 등가어로 파악하지 않고 이것을 위의 기술에서 종단범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S.', 'S?', 'S!'는 의존적으로 생성된 종단범주 'S'가 억양적으로 해석되어 나타난 형태가 되겠다. 의문문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3) S?[Vf x →] [NPnom y]

NP 안에서 무엇이 구조적으로 Vf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실제로 전혀 어렵지 않으며, 다만 첫 단계는 독일어 명사의 대문자 쓰기에 은폐되어 있다. 예를 들면 bellen/Bellen처럼 문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사에서는 이것이 동사 부정사(Verb-Infinitiv)인지 혹은 명사 부정사(Substantiv-Infinitiv)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예: Irren ist menschlich). 어쨌든 이것은 부정사이다. 이 부정사는 예를 들면 인칭과 수와 같은 동사적 단일범주(Einheitenkategorie)(Eisenberg 1989: 36)의 실현을 통해 정형 S에서 동사 어휘소가 구조상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형 동사와의 대립에 의해서 비로소 부정형 동사가 된다. 그리고 이 부정사는 수와 격과 같은 명사적 단일범주의 실현을 통해 정형 NP에서 명사 어휘소가 구조상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형 명사와의 대립에 의해서 비로소 부정형 명사가 된다. 즉 구조적으로 볼 때, NP 안에서 정형으로 실현된 어휘·구조적 중심인 정형명사(Substantivum finitum:Sf)만이 S 안에서 정형으로 실현된 어휘·구조적 중심인 정형동사(Verbum finitum:Vf)와 일치할 수 있다. 이때 독일어 Sf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독일어 Sf는 명사적인 핵 어휘소(Kernlexem)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 어휘소를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 (2) 독일어 Sf는 외심적 유형을 나타내어야 한다.

광의의 한정사뿐 아니라 강변화로 굴절하는 형용사도 실현적이다.

(24) [klein]er Mann

(25) *Koreanische Stahl verkauft sich gut.

(26) Koreanischer Stahl verkauft sich gut.

(27) Stahl verkauft sich gut.

(24)에서 형용사는 강변화 굴절소를 이용해서 명사 Mann을 실현할 수 있지만, 즉 정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약변화 굴절소에서 (25)와 같이 범주적으로 명백히 실현된 구성에서는 NP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6)과 같이 무관사의 형용사 강변화 굴절소를 취하는 NP는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27)과 같이 Stahl이 무관사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Ágel(1993b:22)은 소위 강변화 형용사 굴절소(starkes Adjektivflexiv)가 - 물론 한정사의 굴절 부분을 포함하여(d-er, d-em, ein-en, ein-es, jen-en 등) - 표준어에서는 명사에서가 아니라 한정하는 요소에서 실현되는 명사 굴절소(Substantivflexiv)라는 가설을 유도해 낸다. 이러한 가설로부터 Vf belle, bellt에 구조적으로 Sf [das-Bellen, [ein-]Ø-Bellen, [laut]es-Bellen을 - 이때 괄호 안의 요소는 더 이상 Sf에 속하지 않는다 - 대조시키는 또 다른 가설이 생겨난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종 명사에 대한 수와 격의 유일한 표지어가 되는 관사를 끌어와야 한다. 관사의 굴절부분이 명사의 굴절 계열소로 간주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관사 실현이 정상적인 경우로 간주되는 명사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도입된 물질명사 Stahl을 이용해서 다음의 비문법적 예를 논의해 보자.

(28) *der Preis Stahls

(29) der Preis koreanischen Stahls

예 (28)에서 Stahls는 범주적으로 명백히 단수 2격으로 표지되어 있다. Eisenberg(1989:177f.)에 의하면 한정하는 요소가 없는 단수의 물질명사는 격표지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하는 요소가 있는 (29)는 격표지된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또한 다음 두 예문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30) Korea versorgt Europa mit billigem Stahle.

(31) *Korea versorgt Europa mit Stahle.

한정하는 요소가 빠짐으로 해서 아주 정상적인 NP der Preis와 전치사 mit의 격표지 능력이 갑자기 소멸되는 이유에 대해서 Eisenberg는 설명할 수 없다(문장 (28)과 (30)). 그는 특정한 경우에 der Preis와 같은 NP 및 mit와 같은 전치사가 단순히 아무 격도 표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격표지 능력의 소멸 이유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서 우리는 Stahls와 Stahle가 위의 비문법적 구성에서 단지 정확히 굴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두 경우에서 부정형 명사 Stahl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불연속적 명사 굴절소의 첫 번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비교: 문법적인 구조 der Preis von Stahl에서는 (28)과 비교해서 어떤 부가적인 자질도 실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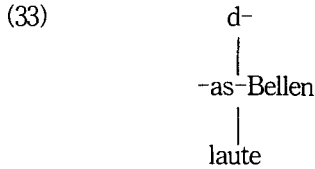
2격 -s는 관사가 선행하는 경우에만 소멸되는 것처럼 보인다. 무관사에서는 2격 -s가 항상 와야한다(예: 29). 이 2격 -s는 (고어체인) 3격 -e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31)에서의 문제점은 전치사 mit가 그 격표지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3격 -e가 독일어에서는 주로 불연속적으로 굴절하는 정형 명사에서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31)에서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즉 여기서는 굴절소 -em을 첨부하려면 할 수도 있고 또 3격 -e도 선택할 수 있는 문장 (30)과는 달리, 한정사가 실현되지 않은 채 3격 -e가 실현되었다. 이와 반대로 다음 문장은 문법적이다. 여기서는 Stahl이 여전히 부정형이기 때문이다.

(32) Korea versorgt Europa mit Stahl.

여기서 전치사는 mit Stahle의 경우와 똑 같이 격표지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정의상 부정사에서는 전치사가 격표지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32)에서 mit은 기능적으로 중의적인 실현구조로 나타난다. 즉 mit이 한편 전치사로서 기능하고(versorgt...mit), 다른 한편 동사적 (zu-)부정사-구성의 zu에 대한 명사적 대응물이 되었다.

명사가 최소한의 자질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자면, d-er와 ein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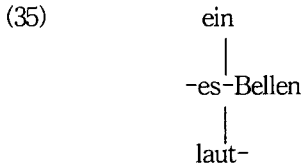
계열소는 실제로 독일어 명사 굴절 계열소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명사와 융합되어 있는 것은 단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굴절 부분만이며, das Bellen과 같은 Sf는 지배소 d-와 의존소 -as-Bellen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서 lautes Bellen은 형용사적 한정사를 취하는 Sf로 기술될 수 있다.



우리가 Sf의 굴절을 규범문법과 기술문법에서처럼 원소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한정사, 형용사, 명사 계열소로 분할하여 여러 위치에서 제시해 보면, 부정관사도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볼 때 das laute Bellen과 ein lautes Bellen(sein lautes Bellen)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ein, mein 다음의 소위 형용사 혼합변화는 구조적으로 볼 때 혼합변화가 아니라 '약변화'이다. 즉 ein, mein 등의 다음에서는 정관사 다음에서와 같이 독일어의 유일한 형용사 변화(=약변화)가 실현된다. 전통문법에서의 세 가지 예외적 굴절형태인 남성 단수 1격, 중성 단수 1격과 4격에서는 불연속적 명사 굴

절소의 첫 번째 부분이 부정관사에서 실현될 수 없다(*einer laute Knall; *eines laute Bellen). 이 경우 명사 굴절소는 한정사가 실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형용사로 옮겨짐으로써, Sf 내부에서 구조적 균형이 유지된다. 즉 명사 굴절소가 기술적으로는 한정사에 대한 두 가지 굴절 계열소(정관사와 부정관사)와 두 가지 유형의 형용사 굴절('약변화'와 '혼합변화')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구조적으로는 실현된 모든 Sf 안에서 통일적으로 오직 하나의 명사굴절과 이전에 약변화로 칭했던 독일어에서 유일한 형용사 굴절만이 실현된다. 형용사 약변화 어미는 명사영역에서는 무표의 어미일 뿐 아니라 유일한 독일어 형용사 어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의존문법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인 두 층위 모형의 가능성과 이들의 관계를 논의하고, 독일어 S와 NP에서 결합가 실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정형 명사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독일어 NP-구조를 순수 의존문법적으로 분석하였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을 토대로 하여 의존문법을 기술하는 Eroms(2000), Vater(1996)의 이론과 그리고 의존문법적인 관점에서 독일어 S와 NP 간의 결합가 실현의 유사성을 기술하는 Ágel(1993a;1993b;2000)의 이론을 중심으로 의존문법과 생성문법의 상호관계를 논의해 보았다.

특히 독일어와 헝가리어를 토대로 하여 두 가지 실현 층위, 즉 거시 층위와 미시 층위로 나누어 이들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독일어 S와 NP에서 결합가 실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정형 명사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독일어 NP-구조를 순수 의존문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논의는 S와 NP 간의 결합가 실현상의 유사성을 찾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Ágel이 제안한, 정형 동사의 개념과 유사한 정형 명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때 소위 강변화 형용사 굴절어미를 명사 굴절어미의 일부로 재해석하는 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날 의존문법은 특히 생성문법 학자들에 의해 가끔 비판을 받는다. Wegener (1990:152f.)에 따르면 의존문법과 GB-이론의 공통점은 이들이 특정한 문장성분을 다른 범주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이다. 의존문법의 결합가 특성은 전반적으로 GB-이론에서 X^0 -범주의 하위범주화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엇이 동사 보충어 내지는 명사 보충어로 간주되어야 하며, 보충어는 그 지배소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형태론적 형식을 부여받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Wegener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점이 문법의 관찰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및 설명적 타당성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그는 개별 동사에서 보충어를 마련하는 의존문법의 결합가 개념에 비해 GB-이론의 장점으로 어휘부의 단순화, 언어습득의 용이성, 고도의 설명적 타당성을 들고 있다. 두 이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될 수 없으며 두 이론의 체계 내적인 정의는 동일할 수가 없다. 좀더 자연과학적인 방향의 이론이 있고 또 좀더 정신과학적인 방향의 이론이 있다.

GB-이론은 소위 심성문법(mentale Grammatik), 즉 언어능력에 관한 이론이고, 의존문법은 대상문법(objektive Grammatik)으로서 언어(개별 언어)라는 대상 자체에 내재하는 규칙체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의 연구대상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내재적(intern=mental)과 외재적(extern=objektiv) 간의 대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언어개념과 문법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GB-이론은 생물학적 대상으로서의 문법을 연구하고, 의존문법은 '언어'라는 사회적 형상의 부분 형상으로서의 문법을 연구한다. GB-이론은 경험적인 방향의 의존문법보다는 더욱 '자연과학적'으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비교의 토대를 간단히 확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예로서 두 이론의 '주어'에 대한 통찰을 들어보면, 주어가 GB-이론에서는 기능적 핵 INFL의 지정어이고, 의존문법에서는 첫 번째 보충어이다.

의존문법과 생성문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전제와 목표설정에서 출발하지만, 많은 일치점과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 두 이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Baumgärtner(1970:52, 66f.)는 이미 초기부터 구성성분구조문법의 원칙과 의존문법의 원칙을 상보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두 원칙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전체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과 통합의 의미에서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 의존(Dependenz)과 성분구조

(Konstituenz)가 문법의 기저부의 기술에 대해 상보적 원칙인지 또는 대안적 원칙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aumgärtner(1970)와 Heringer (1970)는 이들을 상보적 기술방식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Engel(1972)은 이들을 상호 배제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ngel(1972:130ff.) 역시 이 두 모형은 확대될 수 있으며 한 이론의 요소들이 다른 이론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최근의 이론전개에 따르면 많은 점에서 두 이론의 일치현상이 증명되었다(예컨대 하위범주화 규칙과 선택 규칙, 결합가 이론과 격 이론의 통합, 생성문법의 최근의 기술에서 동사의 중심적 역할 등).

일반적으로 한 이론에서 나온 부분적인 통찰들이 다른 이론으로 수용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래서 60년대에는 하위범주화 규칙과 선택 규칙이 생성문법의 표준모형에서 결합가 이론으로 수용되었고, 70년대에는 의미술어 구조가 생성의미론에서 격이론을 거쳐 결합가 이론으로 수용되었으며, 반대로 동사의 중심성은 생성문법의 싹에서 발전된 격이론으로 수용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결합가 이론과 격이론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된 다른 관계들 역시 점차 생성문법의 최근 이론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패러다임을 포괄하며 언어적 사태를 보다 잘 모사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학문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의존문법이 독자적인 출발점을 갖는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의존문법은 처음부터 동사의 중심적 역할에서 출발하였으며, 생성문법이 어휘부를 아직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시기에도 어휘부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하고 있었다. 만일 한 이론이 그 전개과정에서 다른 이론에서 나온 특정한 새로운 통찰을 이용한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학문 이론적으로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의 모듈(Modul) 개념의 장점은 이러한 통합능력에 있다.

참 고 문 헌

- 이점출(1995): 결합가의 실현층위와 독일어 명사구의 의존구조. 독어교육 13집. S. 309-355.

- (1997): 의존문법과 생성문법. 한국문화사. 서울.
- Ágel, V.(1993a): Ist die Dependenzgrammatik wirklich am Ende? Valenzrealisierungs-ebenen, Kongruenz, Subjekt und die Grenzen des syntaktischen Valenzmodells. In: ZGL 21. S. 20-70.
- (1993b): Valenzrealisierung, Finites Substativ und Dependenz in der deutschen Nominalphrase. Kölner Linguistische Arbeiten - Germanistik (=Klage 29).
- (2000): Valenztheorie. Tübingen.
- Eisenberg, P.(1989):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Überarbeitung und Erarbeitung der Aufl. von 1986. Stuttgart.
- Engel, U.(1970): Die deutschen Satzbaupläne. In: Wirkendes Wort 20. S.361-392.
- (1972): Bemerkungen zur Dependenzgrammatik. In: Neue Grammatiktheorien und ihre Anwendung auf das heutige Deutsch (=Sprache der Gegenwart XX). Düsseldorf. S. 111-155.
- (21982,31994):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Grundlagen der Germanistik 22). Berlin.
- Engel, U./H.Schumacher(1976, 21978):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Tübingen.
- Eroms, H.-W.(1985): Eine reine Dependenzgrammatik für das Deutsche. In: Deutsche Sprache 13, S. 306-326.
- (1988): Der Artikel im Deutschen und seine dependenzgrammatische Darstellung. Sprachwissenschaft 13. S. 257-308.
- (2000): Syntax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 Fanselow, G./Felix, S.W.(1987): Sprachtheorie. Eine Einführung in die generative Grammatik. I und II. Tübingen.
- Helbig, G.(1992): Probleme der Valenz- und Kasustheorie. Tübingen.
- Helbig, G./M. Schenkel(31975, 71983):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Leipzig.
- Heringer, H.-J.(1970): Einige Ergebnisse und Probleme der Dependenzgrammatik. In: Der Deutschunterricht. S.42-98.
- Kunze, J.(1975): Abhängigkeitsgrammatik. Berlin.
- László, S.(1988): Mikroebene. In: Mrazović/Teubert (Hrsg.). U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S. 218-233.
- Pasierbsky, F.(1981): Sprachtypologische Aspekte der Valenztheorie unter

-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In: ZPSK 34. S. 160-177.
- Tesnière, L.(1959, 31969): *Elément de syntaxe structurale*(übersetzt von U. Engel(1980):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Stuttgart.
- Vater, H.(1991): Determinantien in der DP. In: "DET, COMP und INFL". Zur Syntax funktionaler Kategorien und grammatischer Funktionen (=Linguistische Arbeiten 263). Tübingen, S. 15-33.
- (1996): VP-Struktur und Verbvalenz im Deutschen. In: Lucien Tesnière - *Syntaxe structurale et opérations mentales*. Akten des deutsch-französischen Kolloquiums Strasbourg 1993. (Hrsg.) von G. Gréciano und H. Schumacher. Tübingen. S. 169-181.
- Wegener H.(1990): Komplemente in der Dependenzgrammatik und in der Rektions- und Bindungstheorie. Die Verwendung der Kasus im Deutschen. In: ZGL 18. S. 150-180.
- Welke, K.(1995): Dependenz, Valenz und Konstituenz. In: Beiträge zur germanistischen Sprachwissenschaft. Bd. 10. (Hrsg.) von L.M. Eichinger und H.-W. Eroms. Hamburg. S. 163-175.

Zusammenfassung

Die Korrelation zwischen der DG und GB-Theorie

Rhie, Jum-Chool(Chung-Ang Univ.)

Das Ziel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auf Grund der Theorien von einigen Grammatikern die Korrelation zwischen der Dependenzgrammatik (=DG) und GB-Theorie(=GB) zu beschreiben.

Nach *Eroms(2000)* sind VPn in eine engere Phrase, die die Ergänzungen in obliquen Kasus bindet, und eine äußere, die die Subjektvalenz abbildet, zu trennen. Dem INFL-Phrasenkopf der GB entspricht das Finitheitsmorphem in der DG. In der herkömmlichen DG steht das Verb an der Spitze des Satzes, aber *Eroms(2000)* stellt S an die Satzspitze. Die S(mit S., S?, S!) sind nämlich oberstes Element des Satzes, von dem alle anderen Wörter abhängig sind. Die Konjunktionen regieren ihren Satz, bzw. der Satz wird durch sie gesteuert. Damit ist die Analogie zur X-bar-Syntax vollständig.

Nach Vater(1996) lässt sich die Struktur der deutschen VP systematisch nach dem X-bar-Schema darstellen, wobei die Zuordnung der Objekte mehrere Möglichkeiten zulässt. X-bar-Regeln allein können nicht die Vielfalt möglicher VP-Strukturen erzeugen. Hier greifen V-bar-Regeln und Valenz ineinander. Vater(1996) schlägt vor, den von Ágel(1993) vorgeschlagenen Unterschied zwischen Valenzpotenz und Valenzrealisierung zu berücksichtigen, um die verschiedenen syntaktischen und morphologischen Realisierungen zwischen verschiedenen Sprachen in den Griff zu bekommen.

Ágel(1993,2000) nimmt in Anlehnung an László(1988) zwei Realisierungsebenen der Valenz, die Mikroebene(=die der morphologischen Aktanten) und die Makroebene(=die der syntaktischen Aktanten) an. Der Träger auf Mikroebene ist der Mikroaktant, also der Teil des Verbflexivs, der Träger auf Makroebene ist der Makroaktant, also das syntaktische Subjekt. Die Begriffe 'Mikroebene' und 'Makroebene' werden sowohl statisch und als auch dynamisch interpretiert. Auf Grund dieser Begriffe versucht Ágel(1993,2000), nach Parallelen der Valenzrealisierung in S und NP zu suchen. Aber die Untersuchung der Valenzrealisierungsverhältnisse in der NP wird zu einem scheinbaren typologischen Gegensatz zwischen S und NP führen. Um diesen Gegensatz aufzulösen, wird das Konzept 'finites Substantiv' eingeführt, das analog zum Konzept 'finites Verb' ist. Dabei wird die sog. starke Adjektivflexion in einen Teil der Substantivflexion uninterpretiert.

Die GB-Theorie definiert sich als eine Theorie der sog. mentalen Grammatik, des Sprachvermögens. Da als der Gegenstand der DG die sog. objektive Grammatik angesehen werden kann, scheint der grundlegende Unterschied zwischen den Gegenständen beider Theorien in der Opposition 'intern(=mental) vs. extern (=objektiv)' zu liegen. Da die GB eine 'naturwissenschaftlicher' organisierte Theorie ist als die empirische Richtung der DG, wäre eine Vergleichsgrundlage in der Tat nicht einfach zu etablieren. Obwohl die beiden Theorien von völlig anderen Voraussetzungen und Zielsetzungen ausgehen, gibt es zwischen der DG und der GB Überlappungen und zunehmende Annäherungen. Generell ist es notwendig, dass Teileinsichten aus einer Theorie in eine andere Theorie übernommen werden. In diesem Aufsatz konnten wir durch die Untersuchung der Korrelation von beiden Theorien partielle Konvergenzen erkennen. Nach Engel(1994) gibt es keine Grammatik "an sich", sie wird von Grammatikern gemacht. Grammatiken sind Menschenwerk und Linguistenwerk. Wir sind auf der Suche nach "einer besseren Grammatik."

[검색어] . 거시층위, 미시층위, 결합가 실현, 결합가 잠재력

Makroebene, Mikroebene, Valenzrealisierung, Valenzpotenz